

“WCC의 포스트모던적 종교다원주의 동향에 대한 바이어하우스 박사의 입장”

이동주

서론

페터 바이어하우스박사는 1991년도 그의 고백적인 교회(Bekennende Gemeinschaft)에서 발행한 *diakrsis*(영분별의 뜻)라는 잡지를 통해서 “기독교 후기의 비기독교적 혼합주의의 특징”이라는 논문을 발제하였다. 그는 1961년 제 3차 WCC 총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후기 기독교 현상”에 관해 논하면서 WCC가 타종교들을 수용함에 따라 하나님의 유 일회적인 사건이며 특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화 되고 회심(개종)을 목표로 한 선교까지 포기하게 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¹⁾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아공 선교사와 교수로 (9년간) 그리고 튀빙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WCC가 정통신앙을 벗어나서 탈 복음적이 되어 감을 직시하고 예리한 안목으로 WCC가 성경적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은 바이어하우스 박사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필자 역시도 1961년부터 진행된 WCC의 기독교 후기적인 정체를 확인하고, 이러한 후기이교도 해체적인 시대에 돌입하게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시의 영으로 기록된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적 복음으로 급속히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1. 포스트모던 종교다원주의적 사조

포스트모던 주의는 1985년 이미 모든 예술분야와 문학, 철학, 심리학,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탈현대주의의 특징**이란 불확실성, 파편성, 표준의 해체, 자아 상실, 기반 상실, 명시할 수 없고, 풍자적이고, 불순하고, 카니발이며, 참여, 짜 맞추기, 내재성, 다양성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튀르크(H. J. Türk)는 생각 없는 (임의의) 다수 (gedenkenlose Vielfalt)²⁾ 라고 설명했다. 탈현대주의 특징에 관해 바뎡(Gianni Vattim)은 근본부터 이질적인 요소를 수용하되 통합하지 않는 점으로 지적했다.³⁾ 또 켐퍼(Dieter Kemper)는 현대주의의 계승이며 동시에 그것의 배반으로, 미의 추구이며 동시에 미에 대한 마비로 설명한다. 그것은 일종의 파멸의 암시였다.⁴⁾ 탈현대를 더 파괴적으로 보는 사람은 데리다(Jaeques Derrida)이다. 그는 탈현대적 다원성을 현대적 바벨탑의 파괴에 비교하며, 그것을 죽음의 의미로 풀이했다.⁵⁾ 탈현대를 이보다 더 비참하게 보는 사람은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이다. 그는 어떤 개혁이나 희망이 없는 꿈을 상실한 이미 닳쳐온 미래의 불행에 대해 진술한다. 그는 탈현대(Postmoderne)를 탈역사(Posthistoire)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종말적인 유토피아는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젠 종말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다는 흑색 진단을 내렸다.⁶⁾

1) Beyerhaus, P., “Wesensmerkmal des nichtchrislichen Synkretismus“, in: *diakrsis*, 12. Jg. 1991. 71.

2) Türk, H. J., *Postmoderne*, Stuttgart 1990, 41f.

3) Welsch, W., *Unsere Postmoderne Moderne*, Weinheim 1991, 138.

4) Welsch, W., *Wege aus der Moderne*, Weinheim, 1988. 28f. Wahrnehmungen katastrophischer Tendenzen.

5) Welsch, W., *Unsere Postmoderne Moderne*, 50-152 Anm. 43.

현대주의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탈현대주의**의 해체주의적 성격은 신학분야에서 특별히 **존 힝(J. Hick)**의 사상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탈현대적인 신학**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 모델에서 벗어나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인 신학적 전환**을 주장한다. 그는 모든 종교의 공동 내용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유신론적 해석이라 하여 거부하고, 불교 같은 종교에 적합한 “실재하는 것은”(the Real) 또는 “참된 것”(the Tru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⁷⁾ 그가 제시한 새로운 신개념인 “the Real” 또는 “the True” 는 P. Tillich 구상과 동일한 것이며, 탈리히는 기독교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유신론적 神을 초월한 神(“God beyond God” 또는 “God above the God of theism”을 제안하고⁸⁾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과 계시신앙과 도그마를 완전히 해체하였다.

이와 같이 존 힝의 코페르니쿠스 적인 신 중심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다 부정하고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구속과 칭의의 길을 거부해 버렸다. 오히려 그는 전통적인 사도신조 및 니케아신조를 이단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주의 신학의 특성에 의해, 교회는 탈현대주의 사조를 따라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신학적 임의성과 자율성을 허용하고, 신학자들은 어떤 규범이나 비판도 받지 않는 무한대의 학문의 자유와, 무한대의 윤리적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WCC의 후기 기독교적 현상

Postmodern적 기독교 후기 현상은 바이어하우스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WCC가 1960년대부터 타종교들을 인정하고 끌어안기 시작한 때로부터 나타났다. 1961년 제3차 WCC 총회에서 제3분과 강연자 **씨틀러(J. Sittler)**는 “포괄적 기독교론”(umfassende Christologie), “확대 기독교론”(erweiterte Christologie), “보편적 기독교론”(kosmische Christologie)을 제시하고, 대속과 믿음과 칭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자연계를 포괄하는 자동적인 구원이다⁹⁾. 또 같은 총회에서 제1분과의 강연자 **데바난단(P. D. Devanandan)**은 타종교들을 “성령의 사역”에 의한 응답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J. Wietzke의 진술과 같이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힌두교 속에서 보았다고 하며,¹¹⁾ 힌두교와 타종교들의 재부흥 발전을 바로 성령의 사역에 의한 응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령을 창조주 자신의 영이 아닌 다른 혼합적인 “성령”과 동일시하여 정통적인 성령관을 파괴하였다.¹²⁾

그후 10년 후에 창설된(1971년) WCC내의 “대화-프로그램”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는 전 세계교회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Dialogue-Program의 초대 책임자였던 인도 세람포

6) Welsch, W., Ibid., 150-152. 주 43.

7) Knitter, P.,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변선환 역, 한국신학 연구소 1987, 397 주 9.

8) 탈리히, 폴, 『궁극적 관심』, D. 맥켄지 브라운 편, 이계준 역, 대한기독교서회 1971. 14f. 73.

9) Sittler, J. A., Zur Einheit berufen, in : Neu-Delhi: 1961, hg. v. W. A. Visser't Hooft, Stuttgart, 1962, 518-523.

10) Devanandan, P. D., Zu Zeugen berufen, in : Ibid., 495. "eine Antwort auf das Schöpferwirken des Heiligen Geistes"

Wietzke, J., Theologie im Modernen Indien - Paul David Devanandan, Frankfurt 1975, 44, 242.

11) Wietzke, J., 242. Innerhalb des sich erneuernden Hinduismus sieht er den "lebenden Chtistus".

12) Ibid., 44. "Wenn wir glauben, daß jede Neuschöpfung in Christus ist dann ist der gegenwärtige Prozeß des 'dynamischen Wiedererwachens' des Hinduismus, das Werk des Heiligen Geistes" 참조: Ibid., 242. Antworten auf dieses Wirken.

대학교수인 사마르타(St. Samartha)는 인류연합을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며,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폐지하고 “존재”론 중심의 진리 개념을 제시하고, 또 기독교론을 확장시키고 (die Christologie ausweitet), 포괄적 성령론(umfassende Pneumatologie)을 만들자고 제안했다¹³⁾. 그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제시하고, 성경적 진리론, 기독교론, 성령론 개념을 모두 확대시키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사마르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종교적 다원사회”라는 논문에서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며, 타종교들을 기독교 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하면서, 역사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개인숭배에 빠질 위험에 처한 반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은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는 절대자의 상대화로 설명하며;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는 위험을 감내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자는 역사 속에서 상대화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다원성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 해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하였다.¹⁵⁾

또 제4차 WCC 총회(1968년)와 제5차 WCC총회(1975년)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토마스(M. M. Thomas)는 대화는 개종이 아니라 “기독교적 힌두”(christlicher Hindu)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christozentrischen Synkretismus)¹⁶⁾를 주장했다. 토마스에게는 기독교나 타종교나를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종교나 무종교나도 중요하지 않다. 전통적인 기독교론 및 구원론과 같은 술어는 과거 기독교인의 종교적 제국주의를 꺾었던 것이다.¹⁷⁾ 그는 모든 종교와 이념들에 대해 자유롭게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Menschlichkeit Christi)에 기초한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였다. Thomas는¹⁸⁾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복지, 안녕, 건강, 부, 평화, 공의, 평등)이 성취된 새 공동체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¹⁹⁾ 이러한 이상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토마스에게 있어서 구원이다. 구원은 역사 저편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영역 밖의 사건도 아니다. 오직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구원이며,²⁰⁾ 이 구원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의 해방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파니카는(Raymondo. Panikkar, 1918-)는 “힌두교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장했다²¹⁾. 파니카는 인도 가톨릭 신부였고²²⁾ 마드리드 대학교수로 미국 하바드대와 캘리포니아대에서도 가르쳤다. 기독교와 힌두교 사이의 접촉점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려고 한 파니카는 바울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리스인들에게 그 신을 알게 해주겠다고

13) Bockmühl, K., Was weißt heute Mission?, Giessen 1974, 131-133.

14) Samartha, S., J.,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종교적 다원사회』, 신학사상 39, 1982, 679, 689.

15) Ibid., 142.

16) Bericht aus Nairobi '75. hg. v. H. Krüger u. W. Müller Römhald, Frankfurt 1976, 245.

17) Thomas, M. M., "Die Bedeutung des Heils Heute", in : *Das Heil der Welt heute* hg. v. Ph. A. Potter, Stuttgart, 1973, 40.

18) Thomas, M. M., "Die Bedeutung des Heils Heute", in : *Das Heil der Welt heute* hg. v. Ph. A. Potter, Stuttgart, 1973, 5.

19) Ibid., 34f.

20) Bockmühl, K., 140.

21) Panikkar, R., Christus der Unbekannte im Hinduismus, Frankfurt 1869, 52.

22) 가톨릭은 에큐메니컬 운동 중에 하나인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rk 설립될 때부터 가톨릭과 함께 하였다.

한 아레오파그(Areopag) 설교에서 힌트를 얻어 “**힌두교 속에 있는 알지못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방종교 속에도 역사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며(52),²³⁾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인정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힌두가 비록 알지 못해도 힌두교 안에서 현재하고 있다는 사상이다.²⁴⁾ 그는 모든 종교를 동일한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들에 비교하였다.²⁵⁾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그 동일성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물을 섞고 그 일치성을 실현하자고 하며, 그렇게 하면 다른 차이들은 물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적 기독교의 물은 힌두교의 강물과 합하여 더 큰 강이 되어 미래의 백성을 해갈해 주자는 것이다.²⁶⁾

WCC 내에서 세계 종교다원주의를 위해서 활약한 위 신학자들, P. Devanandan, St. Samatha, M. M. Thomas, R. Panikkar는 모두 인도와 힌두교 문화권에서 배출된 신학자들이다. 이것은 힌두교 사상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기의 포스터 모든 종교다원주의 신앙과 신학은 바이어하우스박사의 진술과 같이 정통신앙과 함께 교회 내부에 공존하면서 전통적이고 사도적인 신앙고백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3. 종교다원주의 WCC 전성기: 90년대

WCC의 타종교와의 대화분과는 종교다원주의 선언문인 '바야르 선언문'(1990년)이 완성되기 전 20년 전에 이미 '타종교와의 대화'를 실습하였다. WCC 안에 Dialog-Program이 공식적으로 작성되기 약 1년 전(1970년)에 WCC 회원들은 Ajaltoun, Beirut에서 먼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혼합예배**시간을 가져보았다. 인도의 Osmania 대학의 H. Askari박사는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여, “대화”는 우리를 하나의 “새로운 영성”(eine neue Spiritualität)으로 이끌었다고 하였다. 함께 모인 여러 다른 신앙인들과의 공동기도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새로운 영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기도시간에는 기독교이건 모슬렘이건 힌두교인이건 불교도이건 간에 누가 기도했는가는 대수롭지 않았고, 또 무엇을 말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적인 기도 끝에 한 모슬렘이 “아멘”하는 것 째은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의 인간적 상황이었다²⁷⁾고 진술하고 있다.

이 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듬해인 1971년에는 WCC 내부에 ‘산 신앙인들과의 **대화-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 대화-프로그램의 초대 책임자였던 S. 사마르타(1971-1980)는 “대화를 위한 용기(1971)”라는 제목으로 1971년 WCC중앙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구원은 ‘믿는 자의 구원’이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을 확대해석** 하였다.²⁸⁾ 그는

23) Panikkar, R., *Christus der Unbekannte im Hinduismus*, Stuttgart, 1869, 52. Gegenwart Gottes in anderen Religionen.

24) Ibid., 152. Christus im Hinduismus unbekannt gegenwärtig.

25) denn wir sind bereits derselbe Ozean, und unser Unterschied besteht darin, daß ihr ein Strom seid, und wir ein anderer, da wir beide dem Einzigen entspringen.

26) Ibid., 40f.

27). Margull, H. J., Dialog von Ajarltoun: Beirut, in: *Dailog mit anderen Religionen*, hg. v. H. J. Margull u, S.J. Samatha, Frankfurt 1972, 81.

28) 키니몬, “스탠리 사마르타, 대화를 위한 용기(1971)” Ibid., 832-33. 사마르타는 “기독교인들이 대화를 계속하는 근거: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타종교와의 ‘대화’만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이제 교회연합(Ökumene der kirche)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류연합(Ökumene der Menschen)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과거적 교회들간의 대화를 넘어 이제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세계공동체 형성을 위해 모든 종교인들의 협력을 구하였다.²⁹⁾ 사마르타는 ‘믿는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만인구원론적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 성령, 구원의 개념들을 모두 확대해석하여 WCC 안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급진전시켰다.

WCC의 Dialogue-Program과 1973년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세계선교와 복음화대회(CMME=제8차 IMC)에서 개회연설을 세계불교연합회 회장 Diskul Poon Prismai여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녀는 기독교와 타종교들은 겉모양은 다르나 다 같은 목표에 도달한다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불경(Tripitaka)과 성경은 “같은 영”에 의해서 서로 다른 용어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고 하였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건강을 그는 “열반”, “영생”, “신과의 일치”라고 칭하며, 이러한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세계의 종교들은 연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³⁰⁾. 이러한 혼합주의 영성이 1990년 들어서는 그대로 한국 신학계에 전수되었다.

S. 사마르타의 뒤를 이은 제 2차 ‘타종교와의 대화 분과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스리랑카의 W. 아리아라자는 교회연합을 넘어서 “인류연합”이라는 “광범위한 에큐메니즘” 주장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위해서 “신학적 기초들을 다시 고안해 내야하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들은 회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순례자들로 이해한 것이다. 세계통합적 로선에 서서 그는 세상 문제들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언급해야 할 인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정의, 평화, 인권, 환경파괴, 종교, 나라, 문화 경제를 넘어서 함께 일할 필요 언급하며 기독교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지도해 줄 ‘세계적인 도덕’”에 대한 부르심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아닌 통합세계의 도덕법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WCC가 세계통합운동(“광범위한 에큐메니즘”)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다.³¹⁾

WCC가 비기독교인들과의 연합운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된 것은 1968년 옹살라에서 열린 제4차 WCC총회에서 “교회의 보편성(Katholizität)”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강화시켰다. 제1분과 회의에서 사용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교회의 일치만을 의미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비우시는 진리의 빛이시고(요 1:9),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요 1:14)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고후 5:19,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하여 높임을 받으시고(빌2:8-9),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엡1:10)...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최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4, 18-19)...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자유와 사랑의 진정한 보편적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 그는 WCC에 종교다원주의적 만인구원 신앙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는 믿음에 의한 구원과 칭의에 의한 구원을 분설하였다.

29) Bockmühl, K., 131. "Die Grenzen geraten in Unruhe", v, St. Samartha.

30). Beyerhaus P., *Bangkok, '73 Anfang oder Ende der Welt-Mission?*, Stuttgart 1973, 153~156.

31) 키네몬, “웨슬리 아리아라자, 더 광범위한 에큐메니즘: 위협인가 아니면 약속인가?”, Ibid., 847-56.

말이 아니라 인류의 일치를 말한 것이다.³²⁾

위와 같이 우주구원과 만인구원신앙은 부산총회에 이르기까지 더욱 강화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서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자연스럽고 당연해져서 1990년에는 가톨릭대표들과 정교회대표들과 함께 4년간을 연구하여 바아르선언문을 통하여 WCC는 최종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공표하고, 그 이듬해 1991년 제7차 WCC 캔버러 총회에서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총회주제로” 샤머니즘과 혼합한 예배를 거행하며 초혼제를 지내고 종교혼합주의 예배를 실시했던 것이다.³³⁾

1991년 WCC에 샤머니즘이 수용되어 그것과의 혼합주의 의식이 WCC의 총회주제로 거행된 것은 하나의 실수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충동적 도입도 아니다. 이 같은 WCC의 종교혼합주의 예배는 실수로 안한 것도 아니고, 충동적인 허용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는 이미 바이어하우스 박사가 직시한 바와 같이³⁴⁾ 이미 1961년 제 3차 뉴델리 총회로부터 탈복음적 기초가 높이고, 그 후 30년을 지나면서, 1971년 대와-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쳐, 1991년에는 가톨릭대표단과 정교회대표단과 함께 합의로 이루어진 WCC는 공식문서인 ‘바아르선언문’³⁵⁾을 내놓고 극단적인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서, 그 기초 위에서 행한 1991년 캔버러에서 정현경교수가 총회 주제강연을 초혼제 예배의식으로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⁶⁾

이같은 WCC의 탈복음적 진행에 관하여 2014년 교회연합신문이 밝혀준 바와 같이 이상규박사는 “해가 거듭할수록 WCC는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양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아르선언문’을 보면 구원의 역사가 타종교를 통해서도 이뤄져 왔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의 배타적 구원관에서 떠나 타종교에까지 미치는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하며 “WCC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32) *Berucht aus Uppsala 68*, hg. v. Goodall, N. Genf, 1968. 3-18, 343.

33) <https://blog.naver.com/lightbearer7/130182498761>

“흑인 노예자여, 이집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그의 아내 밋세바에 대한 다윗왕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보내져서 죽임당한 장군의 영이여 오소서! ... 십자가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오소서! 십자가에서 착취 당하고 죽임을 당한 우리 형제 예수의 영이여!”

34) Beyerhaus, P., “Wesnsmerkmal des nichtchrislichen Synkretismus”, in: *diakrsis*, 12. Jg. 1991. 71.

35) 최덕성, 『신학총독』, 본문과 현장사이, 2012, 2, 460. 부록. 바아르선언문 (번역: 최덕성), 선언문은 여러 명의 로마가톨릭신학자들, 주교들, 사제들, 신학자들과 특히 종교다원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인 미국의 종교신학자 폴 니터(Paul Knitter)교수가 가담하여 작성한 WCC 공식문서이다.

36) 이 총회의 발제자로 부름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정현경은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총회 주제로 강연하였던 강사 정현경은 예수의 영과 더불어 한 땀 한 땀 죽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사령과 혼돈한 “성령”을 초혼하기도 하였다. 이미 *Schamanin im Bauch - Christin im Kopf*이라는 그의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정현경의 신학은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현경은 창조주 자신의 영과 죽은 사람의 혼의 질적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한국 재래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학교수가 되었고,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하지 못한 채 WCC총회의 강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氣와도 동일시하고, 성령을 여성 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사상이 관음으로부터 왔다고도 하며 “그녀를 맞으라”고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령을 모든 피조물, 사령, 동물 영, 자연 영, 기, 여신, 보살과 동일시함으로써 복음적인 신앙을 버리고 모든 종교혼합주의 영에 굴복한 것이다.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이런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 거부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와 같다.³⁷⁾

사실로 ‘바아르 선언문’이 고백하는 **성령관은 “성령의 종교적 다원성”**이라는 소제목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전통 속에 일하고 계셨음을 인정한다”고 고백한다. WCC의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와 **영적 혼합주의**는 ‘창조자 자신의 영’과 ‘피조물의 영’과 ‘범신론적 우주 영’과 죽은 인간의 혼을 뜻하는 ‘귀신’을 구별 없이 혼합하면서 성경적 개념을 확대시키겠다는 작업 중에 형성된 것이다.

‘바아르 선언문’은 ‘III. 기독교와 종교적 다원성’이라는 소제목 하에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백한 개인적 헌신으로 제한하는 신학을 넘어서야 하는 필요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말씀 안에, 폐기될 수 없는 유대와 연약을 맺고 온 인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연합되었음을 인정한다³⁸⁾

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자동구원 내지 만인구원 신앙을 고백한다.

4. 제 10차 부산총회³⁹⁾의 포스트모던적 종교다원주의적 이중진술

WCC의 선교신학에는 1960년대로부터 현대까지 **종교다원주의와 복음주의**라는 두 얼굴이 있다. WCC의 이중적, 혼합적 태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총회 선교선언문에서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술과 함께 종교다원주의적인 진술**을 발견하게 된다.

37) 교회연합신문, 2014. 6. 7. “한국신학회 ‘WCC부산총회 이후 전망과 대안’, 이상규박사는 2014년 한국신학회 ‘WCC부산총회 이후 전망과 대안’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발제.

38) 바아르선언문이 보여주는 종교다원주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문서는 WCC의 종교간의 대화에 관한 소분과에서 4년간 연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서를 생산해 낸 대회에는 정교회, 개신교, 가톨릭교회가 참가했다”: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해 왔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유한 방식으로 증언해 오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언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모아지자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CWME 보고서, 산안토니오, 1989)...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인] 추구하고 발견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 진리와 지혜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지혜, 통찰, 지식, 이해, 사랑, 경건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다... 종교의 다원성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는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 활동이 어느 특정 대륙, 문화형제(종교), 민족 그룹에 국한 되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이 보존해 온 고유하고 다양한 종교적 증언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이며, 만유의 주라는 성서적 메시지를 결국 부인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종교 다원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될”(고전 15:28) 때를 대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웃 종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를 개방”(CWME 보고서, 산 안토니오, 1989, 29항)해야 한다... 대화 안내서가(1979)가 제기한 질문 “교회 밖의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며 유익한가?(23항)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타종교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 성령 하나님이 활동한다는 데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

39)

<http://cafe.daum.net/msnuga/BPJH/77?q=wcc%20EA%B0%80%EC%9E%85%EA%B5%90%EB%8B%A8> 2013년 10월 30일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전세계 약 5,000명의 지도자가 모여, 약 8년에 한 번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인 제10차 WCC 총회(10th General Assembly of the WCC)가 열렸다.

2013년 부산총회 선교선언문에서 고백한 다종진술 중에서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8항: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들, 그리고 회중들은 구원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 받았다...

57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 하시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다(요 20:19-23). 그러므로 마치 불이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만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⁴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산총회 선교선언문의 특징은 주로 성령론에서 다루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적 진술은 특별히 성령관에서 나타난다. 부산총회 선교선언문의 특징은 그 대신 성령과 그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 ‘그리스도’의 개념 확대’로 인해, 인격적인 ‘예수’와 분리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편성”이 취급되었으나, 이제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 제 37항이 설명하는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격성이 상실된, “만물 안에 생명 충만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창조자의 영’적 보편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부산 총회는 아래와 같이 “성령”을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적 종교다원주의를 고백한다.

27항: ... 생명을 긍정하는 지역의 지혜와 문화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우리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멸시와 조롱을 받아온 전통들 속에 살아 온 사람들의 진술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의 지혜가 피조물 안에서 성령의 생명과 우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방법을 사고하도록 돕는다.

93항: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긍정하는 모든 문화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성령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신앙전통들 안의 성령의 활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영성들 안에 고유한 가치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는 “다른 사람”을 선교에 동반자로 만들며, 선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110항: ...전도할 때에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존경과 신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각각의 혹은 모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복음은 특정 단체에 의해 소유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의 임무는 선교지로 하나님을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행17: 23-28).

WCC가 노골적으로 이중적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현세의 ‘완전한 삶’이라고 정의한 구원관에서 발견하게 된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내세, 영혼구원과 총체적이고 완전한 구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 등을 전제하지 않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구원관’에 치우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 선교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 제 61항에서

40) + 80항: 증언(martyria)은 전 세계 안에 있는 전 인류에게 전 복음을 전한다는 구체적인 전도의 모양을 갖는다... 그 목적은 세계구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부활의 중심성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하는 선교활동이다. 전도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삶을 경험 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와 일치에 대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전체의 우주적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 바와 같이, 부산총회의 WCC의 **세계통합적 사상**은 WCC 선교선언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병행되는 WCC의 우주 구원관 및 선교관은:

3항: “하나님의 선교를 우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과 온 생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

19항: 선교는... 모든 피조생명과 우리들과의 화해된 관계성을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채택해야한다.

20항: 우리는 온 피조물이 ... 화해된 일치 안에 포함된다.(고후 5:18-19)

9. 23항: 구원: “다른 피조세계가 멸망하는데 인간만 구원 받을 수 없다”

46항: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좋은 소식은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계가 실현된다는 약속에 관한 것이다... 포용성은 인간과 피조물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각의 신성한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유지하는 정당한 관계를 촉진시킨다.

61항: 우리는 교회와 일치에 대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전체의 우주적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105항: 하나님의 영의 선교가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확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구원을 온 피조물의 갱신에서 분리시키지 않는다.

부산총회의 이러한 우주 포괄적인 다종교백 요인 중에 하나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그들이 지향하는 포괄적 세계관 때문이다. 제1차 WCC총회로부터 1968년 제4차 WCC 총회까지 총무였고 명예회장이 된 W. A. Visser't Hooft가 WCC총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한바와 같이 “이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일치’(Einheit der Menschheit) 이야기이고, ‘기독교의 연합운동’이 아니고 ‘인류의 연합운동’(nicht der christliche, sondern der menschliche Ökumenismus) 이야기다.”⁴¹⁾

이와 병행되는 모순의 통일은 과거에 이미 1989년 산 안토니오 선언문에서 구사된바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구원의 길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한계를 둘 수 없다.⁴²⁾

WCC의 분과위원회 “세계선교와 복음화 위원회”(CWME)가 2000년에 고백한 “일치를 향한 오늘날의 선교와 전도” 역시 아래와 같이 서로 상반된 내용의 신앙고백을 단숨에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없다. 이상의 두 문장 사이에는 긴장이 있으나, 이 긴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⁴³⁾

41) Bockmühl, K., Was heißt heute Mission? Giessen, 1974, 115.

42) “San Antosio 1989,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선교”, Ibid., 841f.

43)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대한기독교서회, 2007, 135. 필자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상반된 진술을 한 문장으로 구사하는 **꾸란의 꾸절**이 생각한다. 무슬림들의 **이주지역 초기선교전략**으로 사용하는 **타끼야 전략(위증전략)**이 여기에 기초하는 것이다: Sura 2:106: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 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본래의 기독교적 분석적인 신학을 떠나서 WCC가 인도철학처럼 모순의 통일을 감행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WCC는 그 형성기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 아니라, 세계일치운동이 그 목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부산총회 선교선언문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에서 표명 역시 서슴치 않고 우주를 포괄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한다.

4항: 하나님의 선교를 우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과 온 생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다.

23항: 다른 피조세계가 멸망하는데 인간만 구원 받을 수 없다.

61항: 우리는 교회와 일치에 대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전체의 우주적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⁴⁴⁾

WCC의 확대 구원관인 우주구원관은 예수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 강림으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수계시에 의하지 않고 오직 자연계시에 근거하여 설명하며,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전제하며 종교다원적인 구원관을 전개한다.

사실로 부산 총회의 선교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의 결론부 제 121-125항에서는 매 항마다 강조하고 있는 **선교의 목적**이 “**피조물 전체**”(whole creation)와 “**생명의 충만**”(fullness of lif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선교선언문에서 WCC는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는 **가시적 초대형 혼합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 그 뜻을 두고 있다. WCC는 가톨릭과 정교회는 1961년 제 3차 총회로부터 모두 연합하고 있다. WCC 가입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이 가입하게 됨으로 그 교단 내에 입장이 다른 신앙들을 다 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합세력은 점차 상당히 팽창할 수 있다.

WCC가 추진하는 관용요구의 목표는 **모든 종교와의 일치**(Einheit aller Religionen) 영적 교류로(geistliche Austausch mit anderen Religionen) 세계평화를 보전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Überleben der Menschheit) 목표(innerweltliches Ziel)에 도달하고자 함이다.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여 베푸신 아주 특별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화목제물 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종말 전 사건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같은 이들의 시각에서 사라져 버렸다.⁴⁵⁾

제 2차 ‘타종교와의 대화 분과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W. 아리아라자가 교회연합을 넘어서 “**인류연합**”이라는 “**광범위한 에큐메니즘**” 주장한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위한 새로운

44) + 19항: 선교는... 모든 피조생명과 우리들과의 화해된 관계성을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채택해야한다.

20항: 온 피조물이 ... 화해된 일치 안에 포함된다.(고후 5:18-19)

46항: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좋은 소식은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계가 실현된다는 약속에 관한 것이다... 포용성은 인간과 피조물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각의 신성한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유지하는 정당한 관계를 촉진시킨다.

45) Beyerhaus, P., “Wesensmerkmal des nichtchristlichen Synkretismus“, in: *diakrisis*, 12. Jg. 1991. 71-72.

신학을 고안해 내야하는 하고, 이교도들은 회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이다. **세계통합적** 로선으로 인도하는 글로 그는 세상 문제들이 **인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정의, 평화, 인권, 환경파괴, 종교, 나라, 문화 경제를 넘어서 함께 일하며, 기독교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지도해 줄 ‘세계적인 도덕’”에 대한 부르심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아닌 통합세계의 도덕법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가 **WCC가 세계통합운동(광범위한 에큐메니즘)**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분별력 없는 영적 혼합주의적 확신 때문이다.⁴⁶⁾

결어

바이어하우스박사는 독일교회 내부에 침입한 복음을 파괴하는 영(Einbrechen evangelium widrigen Geistes in Lehre und Kirche)의 인본주의, 신이성주의, 기독교마르크스주의, 혁명신학, 선교중지론, 혼합주의, 인류연합운동, 문화기복주의(축제식 성찬), 축제식 성찬, 신세속주의(땅의 신격화) 등과 합한 종교다원주의를 견딜 수 없어하는 독일인 성경학교 대표의 고백을 진술하였다.⁴⁷⁾ 그리고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이러한 **교회의 영적 불확실성과 다원성으로 인해서 살아 있는 복음에 목말라하는 성도들을 위해 독일 주립교회가 다시 한 번 재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절망하는 신도들에 대해 진술한다.**⁴⁸⁾ 이 **탈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비참하게 보는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가 포스트모던 시대를 개혁이나 희망이 없는 꿈을 상실한 **이미 닥쳐온 미래의 불행**에 대해 진술한 바를 깊이 머리에 새기고 **이 세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는 탈현대(Postmoderne)를 종말적인 유토피아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종말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⁴⁹⁾ **데리다(Jaeques Derrida)**가 **탈현대적 다원성을 죽음의 의미로 풀이**한다는 진술을⁵⁰⁾ 우리는 저러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이어하우스 박사가 고후 11:4과 같이 속이는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경고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역사하심을 간파 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가르치며 척도를 알게 하였다.(고전 12:1-3, 요일 2:20-24, 4:1-6).⁵¹⁾

46) 키네몬, “웨슬리 아리아라자, 더 광범위한 에큐메니즘: 위협인가 아니면 약속인가?”, Ibid., 847-56.

47) Beyerhaus, P. “Bekennende Gemeinde im Ringen um ihr Gestaltwerden”, in: *diakrsis*, 10. Jg. 1989. 11, 15.: “... durch Anthropozentrismus, Neorationalismus, christomarxismus, Revolutionstheologie, Missionsstop, Synkretismus, Öko-Ökumenismus, Kultus-Eudämonismus (Feierabendmahl...), Neopaganismus (Erdvergötzung, Re-kanaisierung (religiöser Feminismus) ...

48) ibid., “...kann man nicht hoffen, dass sie die kirchlichen Verhältnis... noch einmal verbessern werden... Mein Herz brennt nach dem lebendigen Evangelium. Ich kann es leider in unseren Kirchen nicht finden

49) Welsch, W., *Unsere Postmoderne Moderne*, Weinheim, 1988. 150-152. 주 43.

50) Ibid.

51) Beyerhaus, P., “Wesensmerkmal des nichtchrislichen Synkretismus“, in: *diakrsis*, 12. Jg. 1991. 73: Darum geben die Apostel den Gemeinden klare lehrmäßige Maßstäbe, an denen Gegenwart und Wirksamkeit des Heiligen Geistes erkennen können.

바이어하우스박사는 실제로 **역사 안에서의 교회**는 한 번도 영적으로 순수해 본 일이 없던 **혼합공동체였다**(*korpus permixtum*)고 증언 하며, 교회 안에서는 항상 진리와 거짓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이러한 공동체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 될 것이며, 때로는 오히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만 소수뿐일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이어하우스 박사와 그의 **‘고백적 공동체’**(*Bekennenden Gemeinde*)가 이 모든 상황에 처한 독일 교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독일 주립교회를 허물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처럼 (*Augsburgische Konfession*) 그의 사명을 다하도록 **위로 받고 힘을 얻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die communio sanctorum*)로 **세우고자 함**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증진시키고자 함”이라고 하였다.⁵²⁾ 이 고백적 교회는 이미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 성령 안에서 평화의 줄로 연합되어 있으며, 한 주님과 한 마음과 한 세례로 아버지께 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엡 4:3-6), 이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⁵³⁾

이러한 신앙과 신학과 선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준행해야 할 사명인줄 알고, 우리도 이를 위해 목숨드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52) “Bekennende Gemeinde im Ringen um ihr Gestaltwerden”, in: *diakrisis*, 10. Jg. 1989. 22-23.

53) *Ibid.*, 27.